俗離山 法住寺 伽藍配置의 變遷에 관한 硏究

張 鉉 錫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박사과정)
崔 孝 昇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주제어 : 법주사, 가람배치, 미륵, 법상종, 화엄종, 통불교, 목탑

1. 序

한국의 現存하는 전통사찰은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三國時代 혹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그 전통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유구한 역사만큼 중창, 재건 등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찰은 거의 대부분이 壬亂이후에 재건된 것으로 初創의 모습을 간직한 사찰은 거의 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 사찰건축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는 역사적인 배경과 변천보다는 현상적인 해석에 치우쳐 있었다.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에 대한 규명은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법주사 伽藍配置의 변천과정에서 초창과 중창, 그리고 재건 등 사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역사적 배경과 신앙체계를 중심으로 가람배치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각 시대별 法住寺의 가람배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속리산 法住寺는 木塔이 중심이었던 고대 사찰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현대와 같이 변모한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주사 가람배치의 변천을 규명하는 작업은 한국 사찰건축의 변화와 흐름을 밝히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法住寺에 관한 연구는 다른 사찰에 비해 미비한 편이며, 특히 法住寺만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에 법주사의 立地와 領域에 관한 연구[1]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법주사에 관해서는 주로 彌勒系 사찰에 관한 연구[2]에서 한 분야로 언급되거나, 문화재 수리보고서[3]의 연혁에서 조금 언급될 뿐이었다.

그리고 사찰건축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配置[4] 혹은 變遷[5]에 관해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다만 우리나라 유일한 목조 탑파인 八相殿에 대한 관심으로 법주사 捌相殿의 구조에 관한 연구[6]가 몇 몇 진행되어 왔다.

법주사는 신라시대 초창 이래 140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重創, 再建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으로 법주

1) 정준철, 법주사의 입지특성과 영역형성에 관한 연구, 光州大 碩士論文, 2000 (法住寺만을 다룬 논문으로써, 법주사에 관련한 사상적 배경과 시대적 변화를 통하여 법주사 境內뿐만 아니라, 주변 庵子의 건물구성과 영역형성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2) 玉泳武, 新羅末·高麗初 彌勒信仰寺刹에 관한 硏究, 漢陽大 碩士論文, 1987
張成植, 彌勒系寺刹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淸州大 碩士論文, 1999

3) 國立文化財硏究所, 法住寺 捌相殿 修理工事報告書, 1998

4)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대 博士論文, 1989

5) 李康根, 朝鮮中期 佛殿建築 內部空間의 莊嚴, 「佛敎美術硏究」 vol.1, 1994

6) 金東賢, 法住寺 捌相殿의 木部接合, 考古美術 105, 1970
權五翊, 법주사 팔상전의 종합적 고찰, 弘益大 碩士論文, 1984
金慶彪, 捌相殿의 構造形式에 관한 硏究, 東國大 博士論文, 1987

사의 배치체계를 규명하기는 곤란하며 법주사의 초창, 중창, 재건 등 역사적 배경과 영향요인 등의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법주사에 관한 古文獻[7]과 古地圖[8] 등을 바탕으로 법주사 가람의 건축적 변천과정을 분석할 것이며, 彌勒信仰을 사찰 조영의 근본으로 하는 사상적 배경을 분석한다. 특히 법주사의 境內에 현존하는 쌍사자 석등(통일신라), 石蓮池(통일신라), 사천왕 석등(통일신라), 건물기단 등 석조물의 造營年代와 건립위치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로는 법주사의 창건이라고 전해지는 新羅時代부터 조선후기와 大韓帝國인 구한말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구한말의 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日帝强占期를 그 범위에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의 空間的 범위는 배치의 변천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법주사의 境內만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속리산 법주사에 관련된 문헌을 수집·조사하고, 둘째 법주사의 자연환경에 따른 立地와 주요 건물들을 고찰하며, 셋째 事蹟記와 上樑文 등 문헌자료를 근거로 법주사의 시대적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또한 법주사 관련 繪畵式 지도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진 등을 토대로 시기별 가람배치를 추정하며, 넷째 법주사 가람배치의 변천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과 배치 특성을 도출한다.

2. 法住寺의 沿革 및 立地

2-1 法住寺의 沿革

(1) 初創과 重創

俗離山 法住寺는 新羅 眞興王 14年(553)에 皇龍寺와 함께 初創[9]되었고 大法住寺라는 寺額은 창건 당시에 승려 義信이 西竺으로 갔다가 흰 노새에 경전을 싣고 와서 大法住寺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이때 한 차례 쇄신될 수 있었다고 한다.[10] 다음해(554)에 사찰과 丈六像이 완성되었으며, 그 후 眞平王 때 왕이 법주사의 彌勒殿에 참배하였다[11]고 한다. 그리고 聖德王때 重修[12]가 있었다.

창건설화에 나타난 義信祖師의 행적은 상징적인 의미를 따져 본 것일 뿐 법주사의 정신이 된 彌勒佛信仰이나 法相宗의 唯識思想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주사의 정신은 이 절의 중흥에 큰 기여를 한 眞表律師와 그의 首弟子였던 永深師에 의해 發顯되었다[13]고 할 수 있다.

『三國遺事』에 나타난 眞表律師[14]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속리산에는 眞表律師 이전에 이미 사찰이 건립되어 있었으며 永深大德 등이 사찰을 중수하고 占察法會를 열어 法相宗 도량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으며,[15] 이러한 법통은 永深大德에게서 心地에게로 그리고 다시 釋冲에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法住寺의 法相宗으로의 창건은 8C 후반~9C 초인 惠恭王~憲德王 사이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16] 이 때 대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高麗時代

고려시대 법주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太祖 天授 元年(918)에 왕자 證通國師에게 명하여 本寺를 重葺하게 하였고 肅宗 6年(1101) 왕이 義天에게 문병하고 仁王經會를 열어 승려 3만명에게 밥을 먹였다고 한다.[17]

그 후 고려 穆宗 9年(1006)에 幢을 주조하여 만들었으며[18] 고려 睿宗 7年(1112)에는 본사 住持

7)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朝鮮寺刹史料』 그리고 法住寺 관련 각종 上樑文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8) 다음 2장의 고지도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法住寺圖(18세기, 정영복 所藏), 法住寺圖(20세기, 법주사 所藏), 그리고 朝鮮古蹟圖譜와 鄭永鎬 교수의 법주사 관련 사진들을 통해 확인, 보완하였다.

9)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皇龍寺 大法住寺 則眞興王癸酉始創…"
忠淸北道, 寺誌, 1982, p.241 『暎嬪房手本』 "…寺之初粗. 在新羅二十三世眞興王十四年癸酉至今計有一千三百六十餘…"

10)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初創建之時 僧義信往西竺以 白騾馱經而來…所以得名爲大法住而爲"
『新增東國輿地勝覽』 報恩縣, 佛宇, 法住寺 "在俗離山世傳新羅僧義信以白騾馱經而來始建…"

11)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承聖三年甲戌 羅眞興王 大破百濟 以忠州爲小京…是寺成而丈六像亦鑄成也 其後眞平王巡小京而幸 四佛山之大乘及法住寺之彌勒殿 拜金身丈六尺…"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報恩縣, 佛宇, 法住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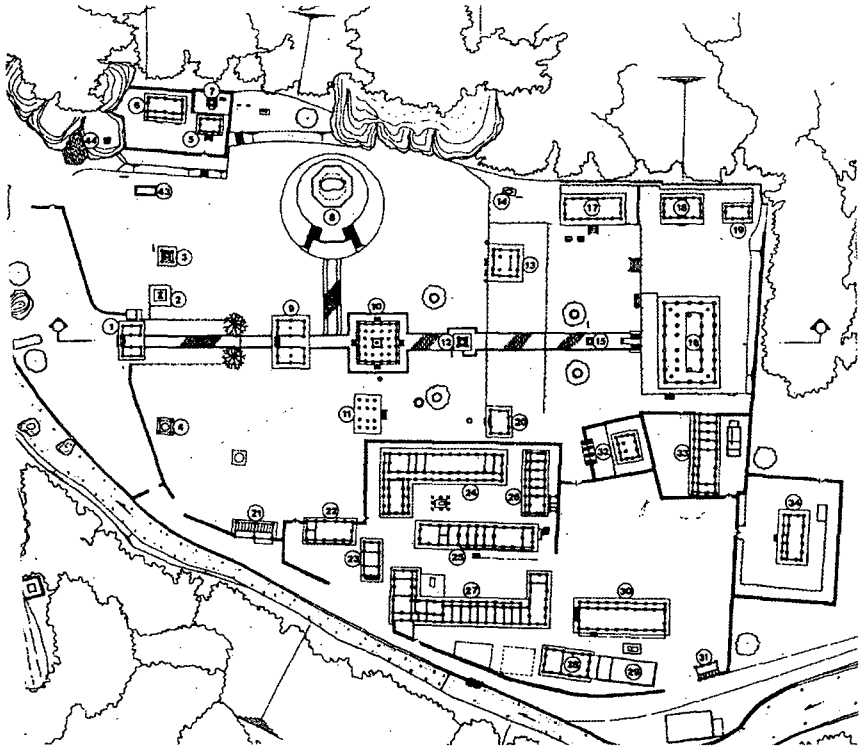
13) 韓國佛敎硏究院, 法住寺, 一志社, 1975, p.20

14)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關東楓惡鉢淵藪石記

15) 國立文化財硏究所, 法住寺 捌相殿 修理工事報告書, 1998, p.54

16) 과거의 기록에 나타난 法住寺의 중창은 惠恭王 11年, 775年에 중창하고 吉祥寺라 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大法住寺, 昭和 2年 7月23日 토요일)

17)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 寶蓮閣, 1981, pp.125-127'義信馱竺經於法寺'



1.금강문 18.명부전
2.당간지주 19.삼성각
3.석연지 20.약사전
4.철확 21.화장실
5.능인전 22.종무소
6.사리각 23.세면장
7.세존사리탑 24.강원
8.금동미륵불 25.동요사채
9.천왕문 26.북요사채
10.팔상전 27.승방
11.종각 28.도서관
12.쌍사자석등 29.식당
13.원통보전 30.선방
14.봉발석상 31.화장실
15.사천왕석등 32.선희궁원당
16.대웅보전 33.대향각
17.진영각 34.염화실

그림 1. 法住寺 中心地域 配置圖 (國立文化財硏究所, 韓國의 古建築 18, 1996, p.76)

道生僧統 왕탱이 전주 牧使 등과 반란을 도모한다고 고발되어 귀양을 가게 되면서 법주사는 태반이 훼손되었다.[19] 고려 충열왕 7年(1281) 왕이 왜구 정벌군을 전별하기 위해 金海府에 행차하였다가 還駕할 때에 法住寺에 머물러 珊瑚殿에서 拜香祝釐하고 이어서 만세를 불렀다.[20]

고려 恭愍王 10年(1361) 10월 홍건적이 침입하자 왕은 福州로 피난하였는데, 경성이 함락당하고 말았다. 이듬해(1362) 경성을 수복하고 8월에 왕이 大法住寺에 행차하여 通度寺에 소장된 佛骨과 舍利 및 袈裟를 가져오게 하여 관람하였다.[21] 그리고 이때 舍利 1粒을 이곳에 移安하였다고 한다.[22] 그러나 이 世尊舍利塔은 造形 형식과 기법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23]되고 있다.

(3) 朝鮮時代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왕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太祖大王이 龍潛에 있었을 때 上歡庵에서 百日祈祝을 설치하였으며, 世祖는 친히 福泉寺에 왕림하여 信眉, 學悅, 學祖 등 여러 선사들을 참견하고 삼일법회를 설치하였다. 仁祖 때(1624)에 碧巖大師가 重葺[24]하였으며, 英祖 36年(1760) 善禧宮願堂을 설치하였으며, 哲宗 2年(1851) 禮曹가 교서를 받들어 完文의 節目을 成給하여 判下하였다.[25]

법주사의 창건 이래 가장 큰 피해는 宣祖 30年

18) 『法住寺鐵器』 "統和二十四年歲次丙午正月□□成幢…"
19)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高麗睿宗七年…道生僧統…全州牧使李汝霖交通不軌王…法住寺太半灰盡可謂樸滿之破也"
20)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高麗忠烈王七年…征倭寇王幸金海府以餞之駕…還駕駐蹕于法住寺拜香祝釐於 珊瑚殿仍呼万歲"
21)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高麗恭愍王十年辛丑十月紅賊十餘万來侵…大破紅賊收復京城 八月王幸大法住寺取觀通度寺所藏佛骨舍利袈裟…"
22) 忠淸北道, 寺誌, 1982, p.227
23) 國立文化財硏究所, 前揭書, 1998, p.76
24) 법주사의 捌相殿에 보장되어 있던 塔誌銘과 上樑文, 大雄寶殿의 上樑文, 그리고 법주사에 세워진 『報恩法住寺碧巖大師碑銘』 등에서 碧巖大師나 그의 사법제자가 법주사의 재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후대의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李康根, 朝鮮中期 佛殿建築 內部空間의 莊嚴, 佛敎美術硏究 제1집, 1994, pp.66-67)
25)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 寶蓮閣, 1981, pp.125-127'義信駄竺經於法寺'

(1597) 정유재란시 왜군의 방화로 인해 경내의 전각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龍華殿 내부의 彌勒丈六像도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1602년부터 법주사의 주요 전각들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捌相殿 舍利裝置의 銅版文[26]에 1597年 9월 倭人들의 방화로 전각들이 모두 盡燒되어, 1602年 10月 시작하여 1605年 3月 上高柱가 立柱되었고, 또한 捌相殿 上樑文[27]에는 1626年 6月 上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大雄寶殿의 경우는 1618年 重創되어[28] 1678年 3重修, 1785年 4重修, 1850年 5重修, 1870년 6重修, 1894年 7重修,[29] 그리고 1976年과 1995年 부분적인 補修가 있었으며,[30] 현재 완전해체하여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朝鮮이 開國한지 500년인 辛卯年(1891)에 坦應禪師가 금강산에서 와서 사찰의 判事職으로 취임하였고, 明年(1892)에 圓通寶殿을 重修하였고, 癸巳(1893)年에는 大雄寶殿과 大香閣을 重修하였으며 乙未(1895)年 五層殿과 極樂寮舍를 重修하였다. 丙申(1896)年에는 講堂을 건축하였으며, 丁酉(1897)년에는 天王門을 修葺하였으며, 己亥(1899)年에는 天王像 4위를 改稱하였으며, 庚子(1900)年에는 예전에 極樂寶殿이 있던 옛 터에 念佛堂을 축성하였으며, 10년 동안 淨土會를 개설하고 3년 동안 華嚴會를 개설하였다.[31]

朝鮮 26代 高宗 3年(1866)에 大院君이 景福宮 중건시 50尺의 鑄銅幢竿과 함께 當百錢을 주조하기 위해 彌勒丈六像을 파괴하였다. 이 때 龍華寶殿도 함께 훼철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석조 유물들만이 옛 터 주변에 산재해 있다.

2-2 法住寺의 立地 및 主要殿閣

(1) 법주사의 立地

태백산의 오른쪽에서 나온 하나의 큰 지맥이 小白, 鵲成 등 여러 산을 만들었는데,[32] 그 중의 하나가 俗離山으로 堪輿家는 돌 火星이라 한다.[33] 봉우리 아홉이 일어서 九峰山이라고도 하며, 新羅 때는 俗離岳이라 했으며 中祀에 올랐다. 산 아래에 8橋와 9遙의 이름이 있는데, 다리가 전체 8개이고 法住寺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길을 9번을 꾸부러져 도착하기 때문이라 한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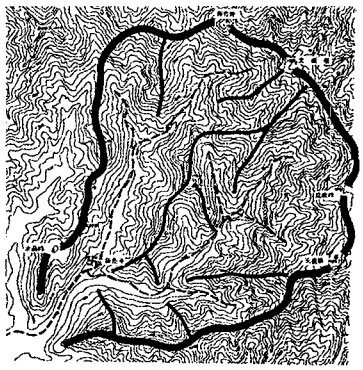


그림 2. 法住寺의 주변 地勢圖
(玉泳武, 新羅末・高麗初 彌勒信仰寺刹에 관한 硏究, p.49)

법주사는 속리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깝게는 水晶峰을, 그리고 계곡방향으로 멀리 觀音峰이 가람배치의 중심요소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널찍한 평지에 터를 잡고 있다. 水晶峰을 가람의 背山으로 기대고 있으며, 전면의 계곡물이 가람을 감싸 안고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2) 법주사의 주요전각

현재 법주사에는 국내 유일의 木塔인 捌相殿이 가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境內 주요 法堂으로 大雄寶殿, 圓通寶殿, 能仁殿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주요 殿閣들로는 金剛門, 天王門, 藥師殿, 善禧宮 願堂, 三聖閣, 鐘閣 등이 있다.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에 의하면 법주사가 가장 번창한 시기에는 건물이 60 여棟[35], 그리고

26) 崔淳雨, 法住寺 捌相殿의 舍利裝置, 考古美術, 100號, 1968, pp.468-471

27) 金東賢, 法住寺 捌相殿, 上樑文, 考古美術, 100號, 1968, pp.495-497

28) 孟仁在, 法住寺大雄寶殿重修上樑文(三種),『朝鮮國忠淸道報恩縣東嶺俗離山大法住寺大光明寶殿四度重修上樑文』考古美術, 103호, 1969, pp.13-15

29) 孟仁在, 法住寺大雄寶殿重修上樑文(三種),『忠淸道報恩俗離山大法住寺大雄寶殿重修上樑文』考古美術, 103호, 1969, pp.13-15

30) 國立文化財硏究所, 前揭書, 1998, p.58

31) 忠淸北道, 寺誌, 1982, pp.282-283『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

32) 李翼成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98, p.60

33) 李翼成 譯, 前揭書, p.158

34)『新增東國輿地勝覽』報恩縣, 山川, 俗離山

35)『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大雄大光明殿(二層二十八間) 珊瑚普光明殿 (二層三十五間或曰龍華寶殿) 八相五層殿(三十六間) 毘盧殿(十七間) 藥師殿 極樂殿(六間) 圓通殿(六間) 說法殿 地藏殿 燃燈閣(三間) 輪藏殿(三間) 海藏殿(五間) 蓮經殿 靈山殿 兜率殿 應眞殿 燕寂堂 振海堂 東上室 西上室 無說堂 東雲集 西雲集 奉爐殿 窮玄堂 香積殿 梵音寮 漪碩堂 解名寮 淸淨堂 浩然寮 明月寮 淸風寮 邀月寮 上南月寮 下南月寮 東賓寮 西賓寮 洗耳堂 緣化房 省行堂 萬歲樓 上判道 中判道 下判道 東板頭 西板頭 梵鍾閣 鍾閣房 海會堂 中客室 福室房 天子閣 大陽門(七間) 天王門 曺溪門 解脫門 東行廊 西行廊 連池石橋(一座) 石獅子光明臺 銅銑光明臺(一座)喜見菩薩 石像(一座) 鑄銅幢 大銑鍑(一座) 大石槽 大石釜(一座) 東殿 浮屠殿 寶明殿 水精橋 歡喜橋

주변 계곡에 70여개의 庵子 등이 있었다고 한다.

3. 法住寺 伽藍配置의 時代別 分析

3-1 初創 및 重創

(1) 법주사의 창건

法住寺의 初創은 義信祖師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법주사 관련 모든 기록에서 전해진다. 이때에는 조그만 庵子규모로 창건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초창지역은 지금 法住寺 境內의 중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정봉을 중심으로 庵子의 규모에 맞게 수정봉 자락의 河川과 가까운 곳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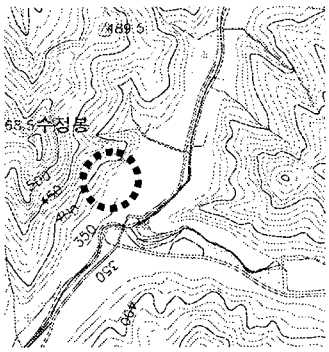


그림 3. 法住寺의 初創 지역

(2) 重創

법주사의 중창은 眞表律師의 제자인 永深大德에 의한 法相宗 사찰로서의 개창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어느 정도 寺格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眞表律師와 永深大德의 행적으로 볼 때, 법주사의 법상종으로의 창건은 8세기 후반~9세기 초인 惠恭王~憲德王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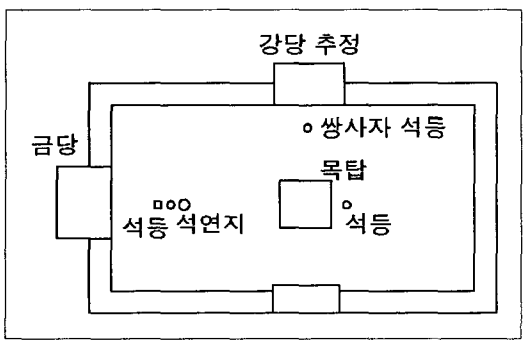


그림 4. 법주사의 신라말 重創伽藍 추정도

법주사의 重創은 고대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가람의 중심에 木塔을 배치하는 一塔式 가람배치의 모습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주위의 산정사이로 20,000 여평 정도의 평탄한 가용지를 형성하고 있어, 平地形 伽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법주사의 중창가람은 일반적인 일탑식 가람배치인 中心에 목탑을 두고 목탑의 뒤로 金堂과 講堂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일탑식 가람배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중문-목탑-강당의 構成軸과 금당-목탑의 構成軸이 교차하는 交軸의 일탑식 가람배치라고 생각되며, 현재의 金剛門의 자리에 南門이 위치하고 전체를 回廊으로 둘러싸는 형식이었다고 추정된다.[36]

이는 법주사의 지형적인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금당인 彌勒殿의 위치가 珊瑚臺라는 암벽을 등진채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金堂의 뒤에 講堂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敎學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敎宗의 하나인 法相宗에서 강당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講堂의 위치는 금당의 후면이 아니라 목탑과 중문을 잇는 軸線 上에 위치하여 금당과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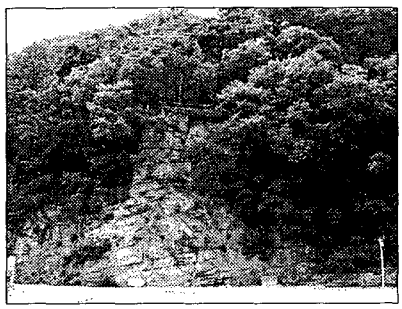


그림 5. 법주사의 珊瑚臺

특히 지금의 임시법당 전면에 위치한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造營된 석조물로써 당시의 講堂, 혹은 중요 전각(후대 극락전) 앞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金堂으로 연결된 석등, 石蓮地와 함께 목탑을 중심으로 交軸을 형성하는 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초기 慶州지역의 太賢系 법상종 사찰에서는 금당의 主尊으로 彌勒이, 강당의 主尊으로 阿彌陀가 모셔졌다. 반면에 眞表系 법상종 사찰에서는 아미타불 대신에 地藏이 받아 들여져서 彌勒과 연결되었다.[37]

36) 정준철은 통일신라시대 법주사의 중창가람을 금당과 탑을 같은 축선상에 두고 북회랑, 동회랑, 남회랑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대웅보전이 건립되는 배치구성에서도 강당이나 圓通寶殿의 전각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정준철, 前揭論文, pp.74-81)

37) 金南允, 統一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서울대 碩士論文, 1983, p.61

眞表系인 법주사의 경우, 강당에는 地藏菩薩이 봉안되었다가,[38] 후에 아미타 신앙이 널리 퍼짐에 따라 강당 위치에 極樂殿이 건립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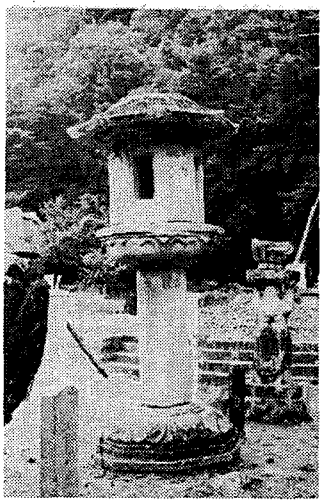


그림 6. 龍華寶殿 앞의 봉발석상-사천왕석등-석연지

金堂인 용화보전의 전면에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석조물들이 일렬로 늘어서는데, 金堂-奉鉢石像[39]-四天王石燈-石蓮地-木塔 순으로 강한 軸을 형성한다. 이러한 龍華寶殿 一廓의 구성은 彌勒下生經의 내용을 재현하려는 의도로 보여 지며,[40]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가 미륵불을 조성하며 근래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3-2 高麗時代

고려시대의 불교는 宗派佛敎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파가 존재하였고, 이는 三國時代의 불교계가 學派에 머무르고 각 사원이 특정한 사상을 가진 불교세력에 의하여 지속되지 못한 점과 다르다. 즉 초기의 3대 宗派와 중기부터 4대 宗派가 골격을 이루었고, 후기에는 기존종파의 침체와 불교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群小宗派가 나타났으나 朝鮮 초까지 4대 종파의 골격은 유지되었다.[41]

高麗時代 法住寺는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3대 종파의 하나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 같다. 특히 穆宗 9年(1006) 幢竿의 설립은 법주사의 敎宗 사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법주사 가람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大雄大光明殿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다. 法相宗의 대표적인 사찰인 법주사에 華嚴宗의 主尊인 毘盧遮那佛을 봉안하는 大雄大光明殿[42]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華嚴宗에 의한 교종의 융합과 天台宗의 敎觀兼修, 그리고 임제선풍의 도입이라는 고려불교의 특색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의천은 敎觀幷修를 주장하여 천태종을 개창하고, 그것을 통해 禪宗을 포섭하였다. 또한 性宗(華嚴宗)과 相宗(法相宗)을 兼修할 것을 말하여 화엄종의 입장에서 법상종을 포섭하였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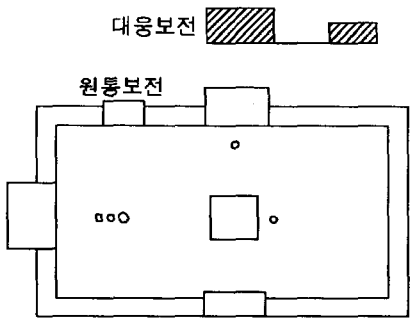


그림 7. 高麗時代 가람배치 추정도

또한 고려시대에는 수많은 佛敎儀禮가 행하여졌는데, 고려초기부터 華嚴經思想에 의거한 華嚴法會가 열리고 있었고, 특히 高麗後期에 盛行相을 보이고 있는 神衆道場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44] 초기에는 仁王經을 바탕으로 하는 仁王經會가 肅宗 6年(1101)에 열렸으며,[45] 중기 이후 占察法會에서는 華嚴信仰과의 연결이 나타난다. 金富軾의 '俗離山占察會疏'[46]에 普賢菩薩의 華嚴經과 眞表의

38) 『三國遺事』 心地繼祖의 내용을 보면, 心地가 속리산의 永深大德의 果證法會에 늦게 참석하여 불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불당을 향에 예를 올릴 때, 地藏菩薩이 매일 나타나게 된다. 이때 방은 講堂으로 생각되며 방안, 즉 講堂 안에는 地藏菩薩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9) 奉鉢石像은 희견보살이 아닌 가섭존자의 모습으로 이후 미륵 부처님께 드릴 袈裟와 鉢盂를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정각, 前揭書, p.70)

40) 張成植, 彌勒系寺刹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淸州大 碩士論文, 1999, p.67

41)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硏究, 一潮閣, 1997, p.15

42) 법주사 대웅보전의 건물 명칭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事蹟記에는 大雄大光明殿, 上樑文에는 大光明寶殿, 大雄寶殿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 비로자나삼신불을 봉안했기 때문에 大雄大光明殿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명칭인 大雄寶殿을 사용하기로 한다.

43) 소운 스님, 하룻밤에 읽는 불교, 랜덤하우스중앙, 2004, pp.105-107

44) 洪潤植, 韓國佛敎史의 硏究, 敎文社, 1988, p.170

45)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 寶蓮閣, 1981, pp.125-127'義信馱竺經於法寺'

46) 『東文選』 卷之一百十, 疏, 俗離山占察會疏

彌勒佛이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엄종[47]과 법상종이 같이 신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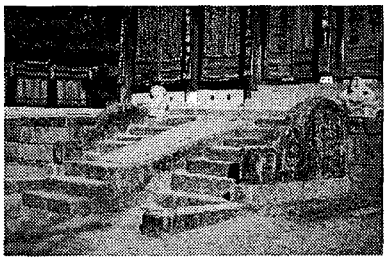


그림 8. 대웅보전의 기단과 계단

법주사 대웅보전의 건립시기는 基壇과 계단석의 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48] 따라서 이때부터 법주사의 가람배치는 龍華寶殿을 중심으로 하는 주축과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축에 의한 交叉軸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가람의 主軸은 용화보전과 捌相殿을 연결하는 構成軸임을 법주사의 오랜 전통[49]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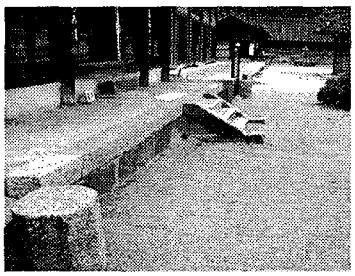


그림 9. 圓通寶殿의 기단

한편 고려시대부터 회랑의 용도가 변질되기 시작하여 通行用의 공간에서 生活空間이나 儀禮空間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50] 法住寺의 경우도 고려 중기 大雄寶殿이 건립될 당시에 回廊이 轉用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지금의 圓通寶殿을 비롯하여 여러 殿閣들이 回廊을 대신하여 새롭게 건립되었을 것이다. 圓通寶殿의 기단과 계단, 초석 등 하부구조는 고려전기 이전의 것으로 판단[51]된다.

3-3 朝鮮前期 - 壬亂 以前

조선시대 법주사의 모습은 왜군의 침입으로 법주사가 灰盡되기 전의 배치와 정유재란으로 불탄 법주사를 再建한 17세기 이후의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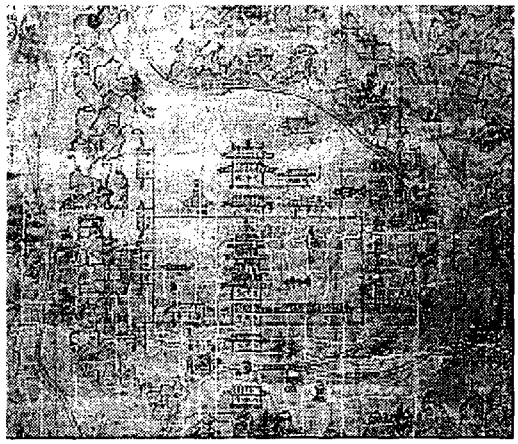


그림 10. 法住寺圖 (20세기 초 呼暎스님 제작)

정유재란 이전 법주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呼暎스님이 그렸다는 현재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는 法住寺圖가 있다. 이 그림은 1920년대에 그려졌다고 추정[52]되고 있으나,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의 기록에 대조해 볼 때, 法住寺圖에 그려진 모습이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 이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3]

특히 延經殿, 香積殿, 梵音寮 등은 정유재란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법주사사적기[54]에 기록되어 있으며, 禪堂의 경우는 고려후기의 인물인 惕若齋先生의 문집[55]에 禪堂에 관한 詩가 전한다. 따라서 이 그림은 조선전기에서 임란 전까지 법주사의 모습을 어느 정도나마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법주사는 고려중기 이후 형성된 용

47) 華嚴思想의 핵심은 多樣性의 統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一卽多 多卽一의 사상은 불교사찰 내의 여러 건물들을 조직화하는데, 여기서 塔은 전체 가람을 통일시키는데 작용한다. (金奉烈, 前揭論文, p.98) 그러나 법주사의 경우는 기존의 미륵사찰의 배치체계에 새롭게 대웅보전이 부가되는 형식이다.

48) 최현각 外, 법주사, 대원사, 2001, p.62 (기단은 중층 형식인데 하층부분은 지대석 위에 장대석이 두 단 가량 쌓여 面石을 이루고 그 위에 갑석이 올려져 마감되었으며 하층 기단의 계단 답도 좌우의 소맷돌에는 蓮花와 荷葉이 조각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소용돌이가 새겨져 있다. 이 기단은 治石技法으로 미루어 조선중기를 전후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國立文化財硏究所, 前揭書, 1998, p.70)

49)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 참조. (고려후기 法相宗을 널리 강설하였던 慈淨國尊 彌授의 行跡碑에서 그 전통을 읽을 수 있다.)

50) 李廷國, 高麗時代 寺刹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漢陽大 博士論文, 1997, p.141

51) 國立文化財硏究所, 韓國의 古建築 18, 1996, p.32

52) 忠淸北道, 寺誌, 1982, p.191

53) 정준철, 법주사의 입지특성과 영역형성에 관한 연구, 광주대 碩士論文, 1999, p.87

54)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1630年 7월에 최초 완성되고 英祖 13年(1737) 6月에 탈락된 글자들을 고쳐 수정하였으며, 純祖 4年(1804) 6월에 배접하고 장정을 고쳤다. 그리고 高宗 10年(1873) 장정을 다시 고쳤다.

55) 『惕若齋先生學吟集』 卷之上, 俗離寺禪堂

화보전과 대웅보전의 交叉軸을 유지한 채 다양한 전각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8세기 이후 형성되었던 回廊은 그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다만 南回廊의 경우 다른 寺址에서 나타나듯이 개조되어 범음료와 천왕문, 그리고 행랑 등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5세기 禪敎 양종으로의 통합과 16세기 通佛敎화 됨에 따라 관음전, 극락전, 약사전 등 개별적인 교리와 신앙체계를 갖는 불전들이 독립적으로 건축되었으며 향로전, 연월료, 등 노전공간과 생활공간 등이 중심공간 가까이에 배치되었다.

또한 연경전과 선당이 동시에 조성되어 있어 교종과 선종이 어울러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56]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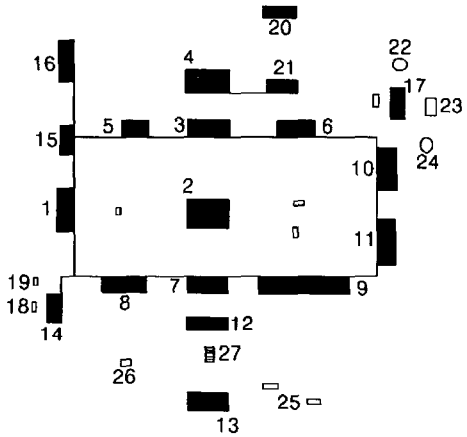


그림 11. 20세기 초 法住寺圖에 의한 배치도
(1.용화보전 2.팔상전 3.극락전 4.대웅보전-향로전 5.원통보전 6.약사전 7.천왕문 8.범음료 9.행랑 10.선당 11.연월료 12.금강문 13.일주문 14.사리각 15.향로전 16.시왕전 17.향적전 18.부도 19.비 20.연경전 21.향로전 22.석웅 23.석조 24.부(가마) 25.비 26.철주 27.홍교)

고려중기 무신정권기 이래 화엄종, 법상종 등 교종이 쇠퇴하고 修禪社와 白蓮社 등 結社운동을 통해 선사상[57]이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려말에는 看話禪[58]의 수행법이 고려불교계의 주류가 되어, 禪宗은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중심이 되었다.[59]

특히 고려후기에 조성되었다고 알려진 世尊舍利塔[60]과 현재는 能仁殿으로 사용하고 있는 舍利閣의 경우 龍華寶殿의 오른쪽 낮은 언덕위에 조성되었다. 이는 金山寺의 미륵전과 도솔천궁이 짝하고 있어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의 상호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61] 법주사의 경우도 용화보전의 미륵하생신앙과의 조화를 위해 상생신앙으로서의 세존사리탑을 용화보전의 오른쪽 언덕위에 건립한 것으로 보여 진다.

3-4 壬亂 以後

정유재란으로 灰盡된 법주사의 재건은 17세기 초에 시작되어 17세기 중엽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가람의 큰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62]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그려졌다고 하는 法住寺圖에서와 같이 현재 석웅(향적전)이 있는 후원공간은 황폐해졌다고 할 수 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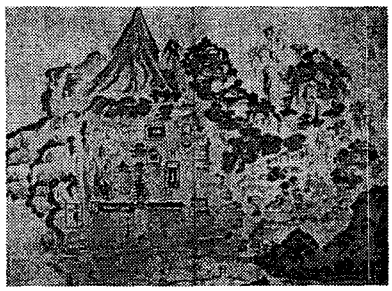


그림 12. 18세기 法住寺圖

丁酉再亂 이후의 법주사는 이전의 용화보전과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二重構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천왕문 좌우의 요사채와 행랑 또한 이전대

56) 정각, 前揭書, p.27

57)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두 조류, 즉 교학과 선종은 서로 양립 또는 융화되면서 한국불교의 축을 이루어 왔다.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종이 전래되기 전까지는 '교학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통일신라 말기부터 禪宗이 전래된 이후 天台宗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교선병립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天台宗과 曹溪宗이 성립된 이후부터 고려 말기까지는 '선교 융섭시대'라 하며, 崇儒抑佛의 조선시대에는 '선교겸학시대'가 열림으로써,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원융불이의 通佛敎'라는 회통불교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2004, p.119)

58) 話頭를 근거로 수행하는 참선법

59)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2004, p.208

60) 國立文化財硏究所, 前揭書, p.76 (世尊舍利塔은 형식과 기법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61) 홍윤식, 한국의 가람, 민족사, 2000, p.216

62)金成讚譯註, 山中日記, 國學資料院, 1999, pp.146-147 (산중일기는 愚潭 丁時翰이 1686-1688年까지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기록한 일기이다. 당시 속리산 법주사에 와서 본 것은 銅柱, 5층 누각, 미륵불, 空聽 3곳, 대웅청과 세 불상, 용화전의 입불과 3개의 탱화, 醬鐵과 3개의 석조 등으로 정유재란 이후 법주사의 재건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로 복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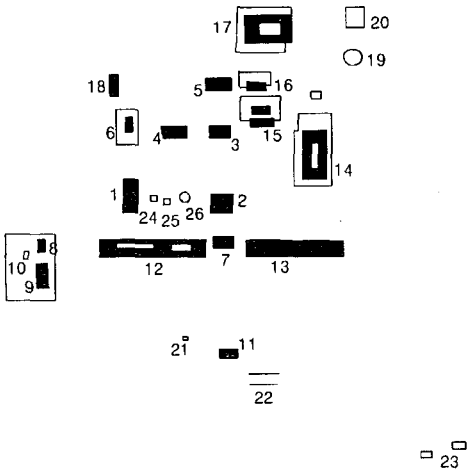


그림 13. 18세기 법주사도에 의한 배치도
(1.용화보전 2.팔상전 3.극락전 4.원통보전 5.대웅보전 6.노전 7.천왕문 8.사리각 9.노전 10.세존사리탑 11.금강문 12.요사채 13.행랑 14.요사채 15.선희궁 원당 16.향로전 17.요사채 18.명부전 19.철확 20.석조 21.당간 22.수정교 23.부도 24.봉발석상 25.사천왕 석등 26.석연지)

그리고 18세기 가람배치의 가장 큰 변화는 善禧宮 願堂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英祖 36年(1760) 願堂의 건립은 법주사의 왕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조선 초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도 왕실의 지원을 계속 받았음을 알 수 있다. 願堂은 대웅보전과 藥師殿 사이, 기존의 남서향 構成軸과 달리 정남향에 가까운 坐向을 취하고 있으며 솟을삼문 형식의 출입문과 담장을 두른 儒敎建築의 祠堂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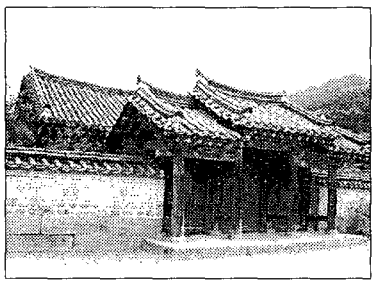


그림 14. 善禧宮 願堂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용화보전과 彌勒佛(1866年)이 훼철되고,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극락전 위치에 1900年 念佛堂[63]이 阿彌陀佛의 극락전을 대신하여 건립되고 지금의 강원자리에 강당이 건축되었다. 또한 天王門 좌측의 요사채는 없어졌으며 우측의 행랑은 후에 축소되어 종무소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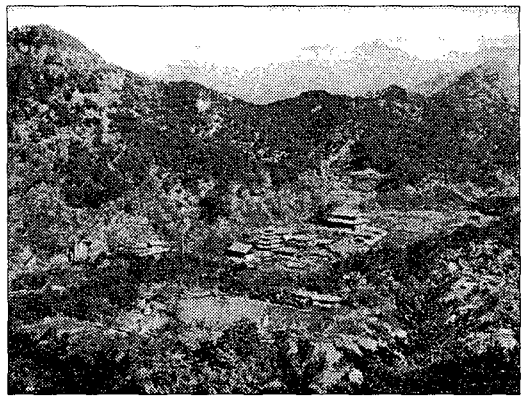


그림 15. 법주사 전경 (朝鮮古蹟圖譜, 1910년대)

4. 法住寺 伽藍配置의 變遷 特性

불교 敎理의 宗派가 형성되기 시작한 8세기에 眞表律師의 제자인 永深大德에 의해 法相宗으로 개창된 법주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교의 흥망과 성쇠, 그리고 다른 종파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永深大德에 의한 법주사의 창건 정신은 다른 종파가 생성, 발전, 쇠퇴의 변화를 겪듯이 法相宗 또한 조선중기 이후의 通佛敎化 될 때까지 學派時代에 발생하여 隆盛期를 거쳐 衰退期[64]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주사 또한 고려전기 華嚴宗, 法相宗, 禪宗의 3대종파, 중기이후 華嚴宗, 法相宗, 曹溪宗, 天台宗의 4대종파 시기를 거쳐 조선시대 太宗의 斥佛 정책과 世宗의 사찰 정리에 의해 禪敎兩宗으로 축소되었다가 조선중기 이후 宗派와 宗團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

법주사는 金山寺, 桐華寺와 함께 眞表系 법상종 사찰의 대표적 사찰로서 창건되어 오랫동안 그 寺

63) 念佛은 조선후기 불교계에 普遍化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미타정토 신앙이 보편화됨에 따라 萬日會라는 念佛法會가 성행하였다. (金煐泰, 韓國彌陀信仰의 展開, 東國思想 vol.16, 1983, p.34)

64) 瑜伽宗(法相宗)의 시대구분과 대표적인 高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學派時代 : 650~750年 - 元曉, 憬興, 太賢 2. 形成期 : 750~950年 - 眞表 3. 隆盛期 : 950~1120年 - 法鏡, 韶顯, 德謙 4. 沈滯期 : 1120~1350年 - 惠永, 彌授 5. 衰退期 : 1350~1450年 (許興植,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1986, p.213)

格을 유지하였다가 고려중기 이후 華嚴宗과의 융화로 법상종과 화엄종이 竝存하는 신앙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법주사 또한 조선중기 이후에는 禪思想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찰의 공간구성은 通佛敎화됨에 따라 大乘佛敎의 신앙체계에 따라 수많은 부처들의 독립된 전각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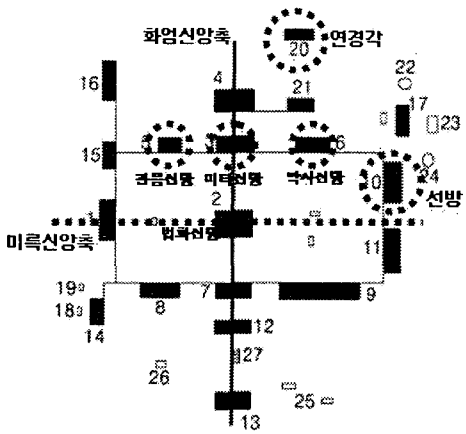


그림 16. 법주사의 信仰體系에 따른 構成軸과 전각구성

8세기 중창 때에는 수정봉과 龍華寶殿, 그리고 捌相殿[65]을 잇는 미륵신앙에 따른 배치구성이 이루어졌으며, 고려중기 이후 관음봉과 대웅보전 그리고 팔상전과 천왕문을 잇는 화엄신앙 축이 미륵신앙 구성축과 交軸을 이루는 이중구조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고려말 이후 선사상의 영향으로 禪房 등의 禪宗 관련시설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18세기에 건립된 선희궁 원당을 근래까지 祖師閣으로 轉用하여 사용한 실례에서도 선종의 강한 전통을 알 수 있다.

通佛敎化 시기인 정유재란 이후의 재건 때에는 기존의 미륵신앙과 화엄신앙 외에 법화신앙의 팔상전, 미타신앙의 극락전, 관음신앙의 원통전, 약사신앙의 약사전 등 다양한 신앙형태의 전각들이 구성되었다. 通佛敎系 사찰의 배치형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4棟의 건물로 에워싸인 中庭의 山地中庭型[66]의 구성에 있는데, 법주사는 이러한 山地中庭형 즉 中庭 중심의 배치구성과 반대되는 오브제 중심의 배치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오브제(木塔-팔상전) 중심의 求心的 배치구성은 回廊으로 둘러싸인 고대가람형식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까지 변함이 없다. 목탑인 捌相殿은 용화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彌勒信仰 구성축과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華嚴信仰 구성축의 중심요소이며 두 개의 構成軸을 통합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捌相殿의 중요성은 丁酉再亂 이후 재건과정에서 다른 어떤 佛殿보다도 가장 먼저 복구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따라서 법주사 가람배치의 중심요소는 목탑인 捌相殿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一塔式 古代伽藍의 전통이 현재에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목탑(捌相殿)을 중심으로 하는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의 이중적 배치구조는 龍華寶殿이 훼철되기 이전까지 미륵신앙 우위의 가람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용화보전-봉발석상-사천왕 석등-석연지-팔상전, 그리고 팔상전 동측 전면에 설치된 石燈으로 연결되는 강한 構成軸은 법주사의 근본 신앙체계가 彌勒信仰에 있음을 보여준다.

5. 結 論

속리산 法住寺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가람배치의 규명과 신앙체계의 변화에 의한 配置構成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주사의 重創은 法相宗으로서의 開創을 의미하며, 이때 금당과 강당이 塔을 중심으로 交軸을 이루는 木塔 중심의 가람배치였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금당인 龍華寶殿이 위치한 지형적인 조건에서 연유한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금당에는 彌勒丈六像을 봉안하고 강당에는 地藏菩薩을 봉안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당시 慶州 중심의 法相宗 사찰에서는 강당에 阿彌陀佛을 봉안하였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眞表系 법상종 사찰에서는 地藏菩薩과의 관련성으로 아미타불 대신 지장보살을 모셨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법주사는 고려중기 이후 華嚴宗 中心의 법상·화엄종의 融和로 대웅보전이 건립되어 팔상전을 중심으로 용화보전과 交軸을 이루는 구성으

65) 1층 초석들의 상태로 볼 때, 捌相殿의 원래 평면형은 3間 방형이었다가 壬亂 이후 재건 당시 현재의 5間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國立文化財硏究所, 前揭書, pp.98-99)

66)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대 博士論文, 1989, p.113

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고려후기까지도 법상종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용화보전 우위의 構成軸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고려시대 다양한 불교의례 중에서 華嚴經에 바탕을 둔 의례가 성행한 것으로 보아 화엄종과의 융합은 또한 佛敎儀禮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고려 말 이후 禪宗의 盛行으로 조선 초에는 선종 관련 전각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임란이후 通佛敎化됨에 따라 미륵신앙과 화엄신앙 外에도 미타신앙, 관음신앙, 약사신앙 등 大乘佛敎의 신앙체계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불전들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용화보전의 훼철로 인해 팔상전과 대웅보전을 잇는 단일 構成軸으로 전환되었다.

넷째, 법주사 伽藍配置의 중심은 창건 때부터 현재까지 木塔인 捌相殿이라 할 수 있으며, 용화보전과 華嚴信仰의 대웅보전이 공존하여 交軸의 二重構造를 형성할 때 두 개의 신앙축은 팔상전에 의해 통합된다. 또한 한국불교의 通佛敎로 대부분의 사찰이 山地中庭型의 공간구성을 하는 것과 달리 오브제(목탑) 중심의 求心的 공간구성으로 창건 당시의 가람배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자료의 한계와 발굴에 의한 정확한 고증을 수반하지 않아 창건에서 임란이전까지는 추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추후 발굴 등을 통해 고증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
2. 『朝鮮寺刹史料』
3. 『新增東國輿地勝覽』
4. 『三國遺事』
5. 『高麗史』
6. 『東文選』
7. 『惕若齋先生學吟集』
8. 法住寺圖 (二種)
9. 朝鮮古蹟圖譜
10. 韓國佛敎硏究院, 法住寺, 一志社, 1975
11. 忠淸北道, 寺誌, 1982
12.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 寶蓮閣, 1981
13.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硏究, 同和出版公社, 1987
14. 洪潤植, 韓國佛敎史의 硏究, 敎文社, 1988
15. 金煐泰, 佛敎思想史論, 民族社, 1992
16. 정각, 法住寺, 법주사출판부, 1993
17. 장지훈, 한국고대 미륵신앙 연구, 집문당, 1997
18.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硏究, 一潮閣, 1997
19. 李翼成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98
20. 國立文化財硏究所, 法住寺 捌相殿 修理工事報告書, 1998
21. 金成讚 譯註, 山中日記, 國學資料院, 1999
22. 홍윤식, 한국의 가람, 민족사, 2000
23. 최현각 外, 법주사, 대원사, 2001
24. 문명대,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언, 2004
25. 법주사출판부, 法住寺, 2004
26. 소운 스님, 하룻밤에 읽는 불교, 랜덤하우스중앙, 2004
2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2004
28. 金南允, 統一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서울대 碩士論文, 1983
29. 權五翊, 법주사 팔상전의 종합적 고찰, 弘益大 碩士論文, 1984
30. 金慶彪, 捌相殿의 構造形式에 관한 硏究, 東國大 博士論文, 1987
31. 玉泳武, 新羅末·高麗初 彌勒信仰寺刹에 관한 硏究, 漢陽大 碩士論文, 1987
32.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대 博士論文, 1989
33. 李廷國, 高麗時代 寺刹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漢陽大 博士論文, 1997
34. 張成植, 彌勒系寺刹의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淸州大 碩士論文, 1999
35. 정준철, 법주사의 입지특성과 영역형성에 관한 연구, 光州大 碩士論文, 2000
36. 崔淳雨, 法住寺 捌相殿의 舍利裝置, 考古美術, 100號, 1968
37. 李康根, 朝鮮中期 佛殿建築 內部空間의 莊嚴, 「佛敎美術硏究」 vol.1, 1994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ite Layout of Beopjusa(Temple) on Sokrisan(Mt.)

Jang, Hyeon-Seok
(Dept.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y)
Choi, Hyo-Seung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of the site layout in Beopjusa which was built on Maiteya faith in the Shill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t in this study, we make conclusions as follows;

1) The reconstruction of Beopjusa means a start in Dhamalsama(法相宗) and then it was supposed to be Buddhist temple which was formed by intersecting axis of centering around a wooden pagoda(捌相殿) with a main Buddhist hall and a lecture hall.

2) After the middle of Koryo dynasty, Beopjusa was changed to building layout of intersecting with Yongwabojeon(龍華寶殿) and Daeungbojeon(大雄寶殿) because of harmony with Avatamsaka(華嚴宗) and Dhamalsama centering around Avatamsaka.

3) The buildings of Zen Buddhism was built in the early Chosun dynasty owing to a prevalence of Zen Buddhism in the late Koryo dynasty. And since 17th century, Buddhist halls were each built in their a faith system according to interpenetrated Buddhism(通佛敎).

4) The courtyard type of mountainous district was made on interpenetrated Buddhism. On the other hand, the site layout of Beopjusa is being maintained by centripetal spatial organization through the wooden pagoda as object.

keywords : Beopjusa, Site layout, Maitreya, Dhamalsama, Avatamsaka, Interpenetrated Buddhism